

에필로그

기록은 우리처럼

#기록하는 나만의 루틴

어떤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기록해요.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은데 상상하는 스토리텔링보다는 구술을 통해서 얻는 재미난 얘기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메모장에, 그 다음에 계속 사진을 찍긴 해요. 평범한 일상을 계속 찍고 그걸 모아놓고 나중에 좀 정리를 하고, 작업에 쓰기도 하지만 작업 안 할 때도 기본적으로 뭔가를 기록해서 남겨서 거기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미혜, 기록수집팀)

일 끝나고 휴무 때나 좀 일찍 끝났을 때 산책 많이 해요.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거 아니고 의식의 흐름대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같은 길로 오고, 이 길을 갈까 이 길 가볼까 저 길 가볼까 그러다가 발견되는 새로운 것들을 찍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평소에 그렇게 자주 생각 없이 걷는 편이에요.

(공인희, 영상기록팀)

저는 인스타를 하루에 한 장씩만 딱, 그냥 제 일상 중에 한 장면만이라도 기억을 하려고 해요. 저도 되게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하루가 어땠지 일주일엔 어땠지 어제 뭐 했지에 대한 자꾸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순간이라도 기억을 하려고 사진 한 장씩을 23시 59분이 지나기 전에 꼭 올리고 있어요.

(김진선, 그림기록팀)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

저를 통해서 저를 지나가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의 아카이빙을 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 여기 이 은평에 대한 아카이빙이지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제 삶에 대한 아카이빙이라서 그런 데 약간 의미가 있어요.(이신정, 그림기록팀)

앞으로를 생각하면 지금 활동할 수 있을 때 잘 기록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경험한 게

많으면 이 기록이 그냥 나를 위한 기록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어떤 전달할 수 있는 기록이 된다면 그런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럼 어린 나이는 아니다 기록하기 좋은 나이더라(박인희, 음악기록팀)

사실 저 자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기록한 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좀 지나서 그 당시에 내가 어땠는지 생각을 하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저를 좀 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저에 대한 기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애죠 (김수희, 그림기록팀)

#2022년 은평 아키비스트 과정에 참여하면서 달라진 점

저는 은평구 토박이잖아요. 오래 살아와서 너무 당연히 여기고 그냥 나만의 시선으로만 이렇게 쪽 봐왔던 것 같은데, 이제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이렇게 기록하니까 좀 더 객관화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겠다. 내 개인 관심사가 개입이 되더라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은평구 나의 마을을 다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박비나, 그림기록팀)

아카이빙 작업을 할 때는 늘 이 자료를 어떻게 손실없이 잘 모아서 잘 기록할까 이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아카이빙이 사업을 다 끝내고 하는 회고 같은 마지막 단계 라고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카이빙이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이랑 계속 나란히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조윤기, 영상기록팀)

#2023년 아키비스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번 여름에 뜨겁게 잘 보낸 것 같아요. 다음 기수 때는 어떻게 기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관찰자의 눈을 갖고 기록하는 그 즐거움도 아시게 되는 분들이 또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계속 기록 작업할 거고 또 변해가는 그 과정과 제 기록을 비교해보면서 계속 아키비스트로 살고 싶어요.(김진선, 그림기록팀)

가사가 그냥 글이 아니라 곡 안에 들어가는 리듬에도 맞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마을을 기록하는 글인데 그런 작업을 한 번쯤 은 시도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멜로디도 사실 본인이 느낀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고 잘 기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고 꼭 한 번 더 도전해 보십시오(이주현, 음악기록팀)

은평은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기도 하고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산도 있고 시장도 많고 인구밀도도 높지만 연령층도 다양하게 보이고 문화가 동네마다 다른 것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한 번쯤 같이 하는 작업을 경험해보고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 더 재밌는 방법으로 뭔가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의 역사가 늘어나는 거죠(이미혜, 기록수집팀)

<기록은 우리처럼>

10인의 사적 기록이 우리 모두의 기록으로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도큐멘테이션

만든이: 이미혜

한여름 워크숍을 시작으로 3인의 멘토와 함께 10인의 신진 로컬 아키비스트들은 10개의 시선으로 은평 커뮤니티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다. '일상'의 기억과 기록을 발굴, 수집하고 은평구 곳곳을 조사하고 탐방하며 그림으로, 음악으로, 영상으로 사라진 기억을 기록하고, 기록으로 기억을 생성해낸다. 기억을 기록한다는 것은 세상을 기록하는 것, 그 기록으로 삶을 성찰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사적 작업에서 공동(공적)작업으로 변환되는 순간들 그리고 과거,현재, 미래를 잇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아키비스트의 과정을 담고 있다.